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854-01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 기념 학술 대담 자료집

제주해녀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일시/ 2021. 9. 30.(목) 14:00~15:30

장소/ JIBS 스튜디오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JIBS스페셜](#)



제주해녀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Tel. 064) 710-3982 Fax. 064) 710-7799
<http://www.jeju.go.kr>

수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인 쇄 처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9-11-977601-1-2 93040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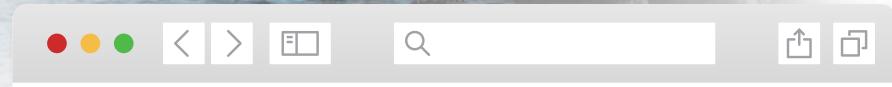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집은 2021년 9월 30일(목)에 개최된
‘제주해녀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학술 대담을
녹취 및 편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주해녀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학술 대담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여
그간의 ‘제주해녀문화’ 보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하여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자 이정민 JIIS 아나운서

발표자 함한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토론자 강정찬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김수희 독도재단 교육연구부장
좌혜경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오상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장



Contents

오프닝	7
주제 발표 1	11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_ 함한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발표 2	15
“제주해녀와 일본해녀의 문화 계승을 위한 과제” _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1	19
•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해녀 공동체의 의미와 보전 방안	
토론 2	27
• 제주해녀와 일본해녀의 문화 계승을 위한 과제 : 제주 해녀 어업의 지속성	
종합토론	35
부 록	43



오프닝

제주해녀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이정민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론 “제주해녀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초인적인 강인함과 근면성으로 오늘의 제주를 있게 한 제주 해녀, 그들이 일궈낸 소중한 문화유산은 이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5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JIBS가 공동으로 특집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지속 가능한 전승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토론은 스튜디오와 화상 연결 이원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두 분이 해 주실 텐데요. 멀리 일본에서 화상 연결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의 이지치 노리코 교수, 네 반갑습니다.

이지치 노리코 발표자

안녕하세요. 이지치 노리코라고 합니다. 오사카 시립대학에 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전북대학교 함한희 명예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한희 발표자

안녕하세요. 네 전북대학교 함한희입니다.

이정민 사회자

예 역시 화상 연결로 발표를 맡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 함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신 좌혜경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좌혜경 토론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민 사회자

네 어서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오상필 과장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상필 토론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특별연구원이신 강정찬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정찬 토론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민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독도재단 김수희 교육연구부장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김수희 토론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화상으로 많은 방청객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전북대학교 함한희 명예교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 1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_ 함한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발표 1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_ 함한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함한희 발표자

네 오늘 제가 제주해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해녀 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 해녀의 향후 등재가 된 이후에 어떤 변화 양상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좀 아주 짧게 10분 안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일주일 동안 유네스코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고 나서 어느새 5년이 훌렸습니다.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등재하게 된 것은 제주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녀의 고령화 및 사회 문화적 변화 등으로 해서 해녀 문화의 보호가 아주 절실하다는 점, 인류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협약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2003년 무형유산협약의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존중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지방이나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서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공표되고 나서를 우리는 유산 체제의 탄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산 체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그 국제적으로도 협상을 통해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무역이나 노동이나 정보, 기술, 공중,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이나 계약이 체결됐는데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이런 문화 영역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런 협약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전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549 종목이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어 있고 127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국은 170여 개국으로 훨씬 더 많지만 등재를 하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등재 전후의 변화 양상을 제가 좀 살펴보면은 그래야만 향후에 어떤 발전 방향을 우

리가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을 확정했고 2012년에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2013년에는 등재 신청 대상 종목으로 선정을 한 후에 2014년에 유네스코에 제출을 해서 그다음 다음 해인 2016년에 대표 목록으로 등재됐다는 연혁이 있습니다. 이 해녀 문화가 대표 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성과 인식의 제고, 보호 방책,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목록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적인 상징이며 해녀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오래도록 전승하면서도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온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방법의 해산물 채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변한다거나 훼손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마 대표 목록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녀 공동체 운영 역시 중요합니다. 공동 채취를 했고 잠수 기술의 전수도 공동으로 이루어졌고 상군의 리더십 등의 상호부조 문화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표 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등재 전후의 정책적 변화를 또 간단히 제가 살펴보니 문화재 법 아래서 이 해녀문화가 공동체로 등재가 어려웠기 때문에 노래나 의뢰나 도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무형문화재 보전과 증진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해녀도 등재가 됐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이러한 특정한 보유자나 단체가 없이 공동체로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산 정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등재 이후에 가장 커다란 성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녀문화유산과가 발족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재 이후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제주 현직 해녀 인구가 지금 3,613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활동 중인 해녀들도 고령입니다. 고령의 해녀들이 아직도 물질을 하고 있어서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해녀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는 있는데 좀 미흡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들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또 개별 해녀 지원 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유산 체제하에서는 아직도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공동체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대한 고려가 좀 약해 보입니다. 이

유산 공동체가 세대를 걸쳐서 전승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로서 공동체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의 어떤 보호 활동 혹은 보존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유네스코 협약 체제의 영향이 결국 국가의 어떤 헤게모니를 강화시킨 것은 명백한데 공동체 중심의 보호에는 힘을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등재 이후에 해녀와 공동체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는 점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유산 만들기에 많은 시간과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녀의 경우는 첫째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중심이었는데 유산 체제 아래서는 제주도 권역을 다 묶는 해녀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단위의 해녀 공동체가 실질적인 운영력을 잃어버린다거나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운영 힘 대신에 정책적인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해녀 문화가 제주도 전체의 문화적인 상징과 정체성으로 부상하면서 해녀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는데 이 또한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 활동에 나서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해녀 공동체에는 좀 부담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맺은 말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녀 문화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해녀 문화가 지속적인 실천과 전승을 위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해녀 문화의 다양한 전승 양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산화 이전에 그러니까 등재 이전의 상태로 각 마을과 지역에서 발달해온 해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더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의 시급성입니다. 조금 더 해녀 문화를 가시화시킨 여러 관계자들도 있고 또 해녀 문화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분업도 필요하고 협조도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전북대학교 함한희 교수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였는데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이제 10분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오사카 시립대학의 이지치 노리코 교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 2

“제주해녀와 일본해녀의 문화 계승을 위한 과제”

_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 2

제주해녀와 일본해녀의 문화 계승을 위한 과제

_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이지치 노리코 발표자

안녕하세요. 이지치 노리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때까지 제가 30년 동안 제주도 바닷가 마을인데 구좌읍 행원리를 메인으로 필두해왔는데 마을에 살았을 때는 동네 삼촌들이나 언니들과 같이 물질도 몇 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때 같이 살았던 분들의 일상생활을 공부하면서 제주 잠수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배경은 행원 마을 풍경입니다. 네 그러면 제 ppt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그 해녀 문화의 계승에 의한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서 제주와 일본의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본 사례는 해녀가 제일 많이 있는 미에현 도바시와 시마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의 해녀 수도 제주도와 같이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해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으로 생각하면은 정답이 아닙니다. 도바시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고령화율이 40%입니다. 일본 전국 평균이 28.9%입니다. 지방사회로서 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는 아직 까지 30대, 50대의 인구가 많고 힘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도바시, 시마시의 해녀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목할 부분으로서는 시마시의 해사 남자로서 물질을 할 사람의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불경기가 관계하고 있는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그렇지만은 도바시, 시마시도 해녀의 후손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녀의 후손자 문제보다는 고령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일본 말로 ‘지키오코시 쿄료쿠따이’ 여기 번역은 부흥협력대라고 하셨는데 활성화 때문에 이런 제도를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도바시에 있는 이지카주에서는 이 제도로 봄으로서 물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명 모집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 응모를 했었는데 이분이 3년 동안 근무 기간을 마치고 지금 이지카주 주민으로서 물질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해녀로서는 물질 할 수 있는데 그 일로만 여기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과 능력의 과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는 해녀에 대한 경제 지원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또 제주도와 일본의 공동 과제 이지만은 자원 부족 해양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한 상품인 전복의 가격은 낮은 수준이고 또 수확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에현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전복 방류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방을 쓰고 있는 그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다밭이라고 부르는데 바다 속 풍경을 변화 시킵니다. 이

때까지 어항 콘솔이나 어항 공사라던가의 때문에 바다밭 풍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잠수 등 해녀들은 바닷속에 있는 바위나 지형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선하기 위한 바다의 지식이지만은 개발은 이런 바다의 지식을 변화를 시킵니다. 오염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곳들은 지역 전체의 주민 의식과 상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 해녀 문화의 개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생활자의 시점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마시, 도바시의 사례로서 지방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 공동체 자체가 선전할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를 선전할 수 없으면 해녀 공동체 개선도 곤란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해녀 공동체의 젊은 사람들이 참가하면 공동체 개선도 가능할 것 같지만 이 경우 감각의 형성, 기술의 습도라는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의 계승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자원 감소나 지역 개발 때문에 바닷가 풍경이 변하면 개선해야 될 지식이나 지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해녀들이 바닷속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해녀를 그냥 해녀로서 보기 전에 지역 생활자로서 볼 필요를 제기합니다. 생활자로서 볼 시점은 해녀와 같이 생활할 가족, 이웃사람, 조합. 지역 주민들이 해녀 문화를 해녀 문화의 계승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말지에 상관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면 물질할 물 오염이나 채집할 해산물의 수확량 또 바다의 개발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서 생각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또 지역 주민의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물질할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해녀 문화 계승의 과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물질 할 시대가 왔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도 남자로서 물질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예외로 생각할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생활자의 시점에서 해녀 문화 계승의 과제와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주의 경우는 마을마다 물질 현장 조사를 이때까지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일본 각지의 상황하고 비교 연구할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녀들이 채집할 해산물의 종류나 가격은 항상 시장 경제에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 경제에 다가가지 않는 개념은 해안 문화의 잔존 가능성 또 환경 보전의 가능성을 제주와 일본 또 동아시아까지 공유할 수 있는 민원이 생기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제주 해녀와 일본 해녀의 문화 계승을 위한 과제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지치 노리코 교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의 해녀와 또 일본의 해녀 아마에 대한 비교 사례가 흥미로웠고요. 일단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정찬 박사님 네 한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 론 1

•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해녀 공동체의 의미와 보전 방안

토론 1

_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강정찬 토론자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류 문화적인 어떤 면에 대해서 공부가 좀 소홀했습니다마는 이 면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화면에 해녀 할머니의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 그 할머니의 그 사진이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는가 사실 제주도 해녀가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해녀 분들은 그 당시에 한 30·40대 됐던 그 해녀분들이 지금 계속 남아서 지금 60·70대 고령인 그런 어떤 계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여기 현직 해녀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 시점,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그 후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 시점에서 다양한 어떤 보존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여 봤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독도재단의 김수희 부장님 독도와 우리 제주 해녀도 좀 연관이 깊다고 들었어요. 독도에도 해녀가 있나요.

김수희 토론자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가기 시작한 거는 해방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과 함께 독도에 한 4~5명 정도의 해녀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집단적으로 제주 해녀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가기 시작한 거는 1953년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1953년 이후면 한국전쟁 이후네요.

김수희 토론자

네 아무래도 한국전쟁 시기에는 바다를 건너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부산이나 포항에 있었던 해녀들이 자연스레 이제 울릉도라든가 독도의 자원을 알기 시작하면서 본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독도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아 그런 또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었군요.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또 제주 해녀에 대해서 남다르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수희 토론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해녀를 경제적 관점에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서두에 있는 것처럼 억척스러운 여성 그리고 자립심이 강한 여성 그리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여성 이런 개척 사항에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그 돈벌이를 하는 여성으로 취급을 많이 했었는데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제주도 해녀어업이 아니라 제주도 문화로서 접근을 하자라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네스코 등재라는 의미와 그리고 제주 해녀들의 어업 문화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그렇습니다. 우리 좌혜경 박사님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제주 해녀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잖아요. 오늘 발표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

좌혜경 토론자

새로운 전통이라는 오늘 제목이 저에게는 상당히 어떤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민속학을 했기 때문에 해녀가 제주의 전통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속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우리의 전통문화가 너무 빨리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해녀 문화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보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때에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이 나잠을 통해서 그 물질이 지속 가능성이 나잠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지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형유산적 가치 그다음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법에 딱 맞는 그런 지속 가능하고 살아 있는 이런 문화가 제주해녀문화이다. 이런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인류학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아 이제 등재되었는데 우리의 역할이 뭘까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어촌계에는 가보면 해녀 노래를 아주 잘하는 그런 전승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잠수굿이 잘 남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화 다양성 속에서 개별 공동체의 이 문화 존중 이것들을 지금 해양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전승에 대한 존중이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 국제협력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에게 많은 시사할 바를 제시를 해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사회자

맞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마을 단위에서 이제 권역으로 공동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올라갔지만 결속력이 좀 떨어질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짊어주셨어요. 우리 과장님 오늘 발표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오상필 토론자

예 오늘 상당히 발표를 잘 들었고요. 네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함한희 교수님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한희 교수님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제주 해녀의 가치를 예전부터 잘 알고 등재를 주장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당히 등재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글에서 보면 밝혔지만 이제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으로부터 주목받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통적인 전문직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생태식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 지식 보유자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21세기형 자연 보존형 인간의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서 제주해녀문화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 교수님께서 저희들도중에 제주 해녀에 대해서 지적하신 제주 해녀의 고령화에 따른 전승 위기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도정에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이 제주해녀문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우리 제주도 당국이 고민이 상당히 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굉장히 좀 고민이 깊다.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다양한 정책들도 개발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함한희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한 다른 의견도 괜찮은데요. 먼저 우리 독도재단의 김수희 부장님 먼저 좀 해주시죠.

김수희 토론자

아 네. 발표문에서 보면은요 제주도 해녀 정책이 개인 개개인의 개별 지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공동체 중심의 유산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함한희 발표자

네네

김수희 토론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서 정의된 유산 공동체의 대상 그러니까 해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유산 공동체 안에 해녀 말고 다른 사람이 포함된다면 제주도에서는 그 해녀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공동체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한희 발표자

제가 공동체라고 할 때는 아까 이치지 선생 제가 선생님 성함을 이지치 노리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생활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 해녀가 해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제 물론 가족들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해녀들이 활동 생활인으로써 활동하기 위해서 마을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가지고 등재된 것은 해녀가 유일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김치도 있고 이러지만 김치 같은 경우 김장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너무 넓고 반면에 해녀를 할 때도 제주 자를 붙여놓은 이유는 처음에 제주를 빼고 그냥 우리나라 해녀로 가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제주를 굳이 붙인 이유는 제주 안에 있는 그런 해녀 공동체 문화가 정말로 이거는 꼭 보존돼야 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했고 이걸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녀 공동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마을 공동체, 마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공동생활의 기본이 됐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는 생태적인 어떤 조건들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공동체의 범위는 우리가 조금 더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거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정책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변해오는 해녀 공동체가 지금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첫 번째 모니터링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한 것도 결국 감시하고 무슨 이렇게 규제를 하려는 그런 모니터링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컨설팅을 하고 현재를 이게 어떻게 앞으로 또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을 좀 더 조사해야 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너무 이렇게 어떤 범위를 두고 이렇게 몇 개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중심의 주체로서 활동했던 마을 단위의 해녀들의 활동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공동체고 그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좀 더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폭넓게 가족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녀 일은 안 하지만 해녀를 돋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단체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해녀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또 꽤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방적인 어떤 구성 구조 이런 것들이 해녀 공동체를 현재 그리고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희 토론자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정민 사회자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좀 모니터링하자 우리가 좀 지켜보고 변화를 함께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대가 굉장히 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해녀문화의 보존 방안도 진짜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해녀 공동체 문화 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좌혜경 박사님 제주 해녀 공동체 문화에 지속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좌혜경 토론자

사람 해녀 수가 줄어든다 이거보다는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해녀는 언제든지 생긴다. 요즘과 같이 정말 어려운 그 취업도 어렵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자원이 되어서 한 달에 한 오백만 원만 벌어진다면 그 작업을 안 하실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사람보다는 바다 바다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이라든지 지금은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바다가 너무 황폐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녀 문화가 어떻게 보면 문화인데 이게 해양수산 쪽에서 해녀 문화를 지속 보존하는 이유도 이 바다 해녀들이 작업 할 수 있는 바다에 대한 자원이랄까 아니면은 그런 환경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쪽이 이제 해양수산 쪽 이어가지고 그쪽에서 해녀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건 해산물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이 계속 움트는 이런 바다인데 이런 바다 가꾸기라든지 우리 바당밭 가꾸기 그다음 바당밭 그다음 살리기 이런 것들에 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고요. 제가 해녀 학교 두 군데를 특강을 가는데 해녀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해녀 학교가 조금은 행정에서 성의를 가지고 이 해녀 학교 졸업생 또는 입학생 해녀 학교 교육 시스템 이것들을 조금 재정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해녀를 어촌계에 가입이 되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규적인 그런 학교 제도가 마련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본 거는 그 정도예요.

이정민 사회자

네 사실 문화라는 게 또 자연환경과 떼어놓고도 생각할 수 없지만 워낙 요즘 빠르게 또 기후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김수희 부장님 다른 지역에도 해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공동체 문화가 있나요.

김수희 토론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주도에서 해녀어업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제주도 해녀를 둘러싼 문화로 접근을 해서 해녀를 관광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동체라는 의미 해녀 공동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그 마을 어장을 사용하는 한국

어업 문화의 전통성이거든요. 그 육지 지역에서는 이제 어업 조건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어업을 하면서 공동 어업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업 공동체라는 거는 제주도 해녀만의 독특한 그 어업 스타일이 아니라 육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해녀의 공동체 어업을 어떤 특정화 어떤 특이하다 하고 이색적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한국 문화 안에서 제주도 해녀 문화를 논의를 하되 그 해녀 문화가 물속에 들어가서 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여성들이 어업을 하는데 이러한 어업 스타일이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확립이 됐다는, 네 그런 이제 제주도의 오랜 전통 어업 문화가 제주도에는 지속이 되어 있고 이러한 해녀들이 그 일제시대 때 그 어업 스타일이 전업화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항일 투쟁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해녀들이 이제 해방 70년대까지 수천 명의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육지 지역을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과연 제주도에 어떤 문화를 유입을 시키고 제주도 사회를 어떻게 변혁을 시켰느냐 네 이런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주도 해녀를 모색해야 될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말 그대로 공동체문화 문화적으로 이제 해녀들을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정찬 박사님께서는 공동체 문화 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강정찬 토론자

제가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좌혜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네 일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 일단 그 등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각계각층들의 어떤 수고로움들이 아마 결집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재는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다른 농어촌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농어촌은 일단 고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구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주도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50만 명에서 지금 거의 7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 폭증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의 그 수는 결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직업적 행위로서의 어떤 매력이 없다. 매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 직업적 행위로서의 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교수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일터를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해녀들이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그렇군요. 우리 좌박사님과 좀 맥락을 같이 하신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오상필 과장님 네 제주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 역시 사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흐름을 좀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오상필 토론자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각 패널분들 주신 의견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은 많고요. 그리고 우리 김수희 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 해녀, 제주해녀문화 공동체가 좀 특색적이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감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2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있으면 이제 191개의 탈의장이 있습니다. 그 191개의 탈의장이 어떤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불턱의 현대식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그 불턱에 모여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마을의 공동체적인 것들을 얘기했던 문화거든요. 그런 독특한 문화들이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녀분들이 작업복인 물소중이가 고무옷으로 바뀐 것 외에는, 공동 입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 출하를 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바뀌지를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쭉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해녀문화는 다른 유네스코의 종목이나 문화재와는 달리 생업을 바탕으로 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과 문화가 자전거 바퀴처럼 함께 이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제주 해녀 공동체 문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생업 지원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유지돼야 한다는 거는 우리 좌혜경 박사님이나 박사님 의견에 그런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제주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문화 분야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해녀 협회를 창립을 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해녀의 날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해녀 인명록 제작이라든가 해녀 생애사 조사 등 해녀들이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 론 2

• 제주해녀와 일본해녀의 문화 계승을 위한 과제

: 제주 해녀 어업의 지속성

토론 2

제주 해녀와 일본 해녀의 문화 전승을 위한 과제

이정민 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우리 함한희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치 교수께서 이제 제주 해녀와 일본 해녀의 문화 전승을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주제 발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우리 김수희 부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수희 토론자

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해녀들도 해녀 수가 감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녀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해녀의 학교를 설립을 하고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는 특별한 지원 정책이 없거든요. 들어보니까 없었는데도 그 해녀의 평균 연령이 한 65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해녀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녀어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지원 정책이 없더라도 해녀어업이 유지되는 거는 어떤 내적 요인이, 일본 안에 자생하고 있는 어떤 내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그렇네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우리 강정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강정찬 토론자

네 먼저 30년 전에 직접 물질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지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30년 전 행원 바다와 지금 행원 바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정민 사회자

그렇겠죠.

강정찬 토론자

일단 생태계 자체가, 이 숲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본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생태계 기반의 그런 어떤 생물들이 많이 지금 소멸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 해녀 문화와 그리고 이 지속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사실상 이지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해녀 수의 감소는 결국은 도시화,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어떤 교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문제를 통해 갖고 자원들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많은 연구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서로 이런 방안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정민 사회자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다른 듯하면서도 닮은 게 많은 한국의 해녀와 일본의 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오상필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상필 토론자

좀 발표하신 이지치 노리코 교수님은 제주 해녀와 일본 아마를 모두 연구한 학자로서 일본과 제주 해녀의 문제점과 대안을 잘 제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의 귀어 귀촌 정책인 지역부 협력대 제도를 이제 통화의 도시민의 지방으로 아주 정책 소개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사라져가는 우리 어촌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귀어 귀촌 정책을 많이 좀 수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촌 소득에 좀 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큰 효과를 이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와 일본 모두가 갖고 있는 이 고령화에 대한 고령화에 따른 이제 해녀 감소 문제와 또 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 고갈에 대한 제한 등은 우리 제주도와 좀 유사하고 정책 방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우리 좌혜경 박사께서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좌혜경 토론자

노리코 교수님 감사합니다. 늘 제주 해녀 관심 많으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몇 년간 일본 다니면서 본 결과로는 상당히 우리 보다 이 자원 관리라든지 적정 생산량 그리고 계획적인 물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의 취지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주 현대적인 그런 계획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그때 다닐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꼭 이제 해녀를 주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예를 들면 호텔에 일하러 갔다가 이제 어느 계획된 물질 시간에는 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주업 부업이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거 가능

하겠네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난 해녀들인 경우는 젊은 해녀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 저기 토바시의 이즈카초 해녀 채용 이런 정책도 우리한테도 우리는 지금 약간의 그 얼마 그 물질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그거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고, 이런 아예 채용 형태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해녀의 집에 해녀 그분들이 음식을 팔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막 그거를 날라다니다. 이렇게 해서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해녀의 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유효한 그런 인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실질적인 정책에 이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자라는 게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의 시점에서

좌혜경 토론자

생활자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제 우선 살아가야 하니까

이정민 사회자

우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발표 발제자이신 우리 교수님께 질문 또 의견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우리 강정찬 박사님 먼저 좀 질문해 주십시오.

강정찬 토론자

제가 이지치 노리코 교수님께서의 발표에 좀 주목을 했던 게 토바시와 시마시 그 두 지역 간 해녀 수 감소 양상을 비교를 했을 때 보니까 시마시의 감소가 더 크더라고요, 토바시보다는. 이것이 두 지역 간의 어떤 인구 구조에 대해 야기되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그 두 지역 간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어떤 효과인지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토바시와 시마시를 인공위성 지도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두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해양식을 하고 그다음 배로 낚시하고 그 마을인 것 같더라 그런 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어떤 지금 생태계의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감지가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게 감지되는지 그리고 만약 감지가 됐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지치 노리코 발표자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마시가 도바시보다 또 다른 직업의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살

아가야 되니까 좌혜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서는 물질만 하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시마시를 비하면 관광에 관련된 상점이나 호텔 같은 것도 큰 호텔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또 큰 주변 도시에서 자가용차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서 시마시에 살면서 호텔에서 일도 하고 또 바닷속에 들어가기도 하고라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그런 그냥 직장으로서 어디를 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 볼 때 해녀 문제보다는 소자화나 고령화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녀를 가지고 계승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보다는 지역 전체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제주도와 비교할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마시에서는 해사가 남자로서 물질을 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에현은 이세에비라고 미국에서 랍스타라고 할 큰 새우가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이세 새우의 수확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세 새우는 전복의 어린이 조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방류해도 이세 새우 많아지면은 당연히 방류한 전복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에현 수상연구소에서 다른 먹이, 미끼라고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세 새우가 먹을 것을 좀 시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세 새우 어민하고 해녀들이 어민으로서는 다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교류가 없다라고 단순하게 말씀 드리자고 하면은 교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 사회자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강정찬 토론자

네네

이정민 사회자

네 저희가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 산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경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녀 산업이 적지 않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해녀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지 얘기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좌혜경 박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좋은 대책 어떤 게 좀 필요 할까요.

좌혜경 토론자

특별하게 좋은 정책이라는 거는 저보다 해양수산 쪽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구좌 하도리 바다 그다음에 우도의 바다 여기에는 해녀가 작업을 하려면 몇 명의 인력이 필요

한지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예 그런 게 아주 기초적인 데 이터들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촌계 별로 아까 문화 단위로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어촌계라는 조직이 행정, 수산 행정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상당히 답답할 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네 예를 들면은 요즘 함덕 어촌계가 그 해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촌계 나름의 그다음 그 지역 나름의 이제 역사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정민 사회자

네네

좌혜경 토론자

그래서 이제 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문화 쪽을 얘기를 해왔는데 저희들 수산 쪽에서 이 해녀문화유산과에서 FAO 농어업 유산을 이제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등재되었을 때 농업 시스템으로 등재되었을 때 해양수산부가 이제 적극적인 지원 같은 게 좀 더 있으면 약간은 해녀 산업이 문화 산업이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획일화된 것보다는 그 특성에 맞는

좌혜경 토론자

네 어촌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산들을 자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정민 사회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수희 부장님 어떠십니까.

김수희 토론자

네 현재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그 어업 환경이 악화되고 자원이 고갈됨으로써 해녀들의 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해녀들이 이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녀 수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치 노리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활자라는 입장,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해녀가 되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60일간 어업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해녀의 조건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완화를 하고 그리고 해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호텔에서 오전 중에 일하고 오후에는 이제 물 때에 따라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해녀어업이라

는 게 전업적 어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업적 어업으로 발달된 게 해녀어업이었고 365일 이제 해녀업을 함으로써 돈벌이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근대기의 직업적 관점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해녀가 등장하면서 전업화됐지만 그전에는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어업 스타일이 가사 노동도 하면서 또 밭에 가서 일하면서 그리고 틈틈이 이제 물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던 게 이제 해녀어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 환경 악화로 인해서 어업 활동에 지원을 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보다는 해녀들, 해녀라는 문화를 앞세워서 이 해녀들에게 이 해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더 폭넓게 문을 열어주는 게 좋은 정책 방향이 아닐까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사회자

이게 사실 생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각도로 다가가 보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강정찬 박사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강정찬 토론자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해녀라는 그 직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일단 해녀 공동체가 있었고 바닷가에 모여서 산 사람들 그리고 암반 생태계가 있었고 만약 여기가 뺄이었다면 제주도가 뺄이었다면 뺄에 맞는 그런 공동체가 발달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하고 맑은 바닷물과 이 자연 속에서 물질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마련돼 있고 세 번째는 해안가 마을에 있는 농토들이 되게 척박해요. 네 신도도 얇고 작물도 안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염해도 있고 더군다나 그 예전에 70년대에는 또 용수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밭에 가서 일을 해도 소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닷가에서 더 매력적인 더 고가의 수산물을 건져 올려서 팔자는 이런 게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지금은 바다보다는 육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연안 쪽으로 인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요인들의 변화들을 어떻게 변화해 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예상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정책 현황과 과제

이정민 사회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변화해 가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녀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현황 또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굉장히 많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계시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주요 정책과 함께 새롭게 추진 예정 중인 정책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상필 토론자

앞서 이제 두 발표자의 주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 해녀는 이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생업과 문화가 이제 공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녀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후 변화로 어장이 변화하고 있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해녀의 어떤 안정적 생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라 가격 보전 지원과 풍성한 해녀 어장 조성을 위한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녀 바당 지원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저희들 해녀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소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이제 확대한다든가 고령 해녀의 이제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 그리고 신규 해녀 가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지금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해녀 문화 지원을 위해서는 또 해녀 문화 콘텐츠 발굴과 지역 어떤 문화예술단체와 해녀 동호회를 연계하는 해녀 공연팀을 뭐 발굴해서 육성을 한다든가 또한 제주 해녀 프로모션 사업 등을 통해서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세계인에게 제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역시 이제 그 도에서도 산업과 또 문화로 나누어서 지금 정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강정찬 박사님 네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강정찬 토론자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터에서 어떤 많은 정책적인 그런 어떤 추진 방안 이런 그런 분야들과 많이 마주칩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 치패를 방류를 한다든가 해중림을 조성을 한다든가 유용 해

조장을 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교류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복리후생이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해녀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그 보호 정책이 어떤 해녀가 해녀 문화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주체가 되기보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라는 어떤 객체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아직은 우세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다를 살려야 돼 그리고 이 바다를 살리는 과정에서 해녀의 공동체를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하나의 바다를 살리는 과정이 하나의 일터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해녀들이 자립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정민 사회자

우리 강정찬 박사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좌혜경 박사께서는 네 어떤 좀 의견 갖고 계신가요?

좌혜경 토론자

저는 해녀분들이 너무 같은 여성으로서

이정민 사회자

네

좌혜경 토론자

힘들게 생활을 했었고 요즘 유네스코 된 이후에 해녀분들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네스코를 모르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해녀분들도 아마 행복하고 그러신데, 이제 이게 바다 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은 어장을 잘 관리를 해 주시면 해녀분들도 행복하고 바다 어장도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어장이 어렵지만 다 압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면 신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민 사회자

사실 오늘 나오셨는데 굉장히 좀 많은 주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장 관리까지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과장님

오상필 토론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우리 김수희 부장님께서는 또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김수희 토론자

지금 제주 해녀는 한 3,500명 정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해녀들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40% 이하가 제주도 해녀고요 한 60%가 이제 육지 지역에 있는 해녀들입니다. 그 해녀들이 각 지역에 제주도를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해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해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마다 그 나름대로의 해녀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천 500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해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경북형 해녀의 정체성 확립 연구를 하면서 해녀 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스마트 태워 스마트 시계 이런 것을 이제 보급을 하면서 해녀들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들이 제주도만큼 이제 정착이 되면 나름대로의 지역화가 되면서 해녀의 정통성을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 해녀의 뿌리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런 각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러니 까 한 60% 이상, 제주도 해녀를 제외한 전체 해녀의 60% 이상이 되는 해녀들과 유대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해녀들과도 이 제주해녀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작업을 같이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민 사회자

예 저는 그렇게 많은 수의 해녀분들이 경상북도에 계신 줄 몰랐어요. 아까 스마트 태워, 스마트 워치는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해주세요.

오상필 토론자

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서도 한 2년 전부터 그런 해녀들의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 하다 보니까는 그런 안전 조업을 위해서 그런 좀 스마트 안전 태워이라든가 스마트 워치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해녀들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좀 그 지점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다 물속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 크게, 그 안전 장비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민 사회자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오상필 토론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제가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니죠. 제가.

오상필 토론자

아닙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앞으로 또 도에서도 더 많은 부분 좀 보완을 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온라인 화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우리 방청객 질문을 좀 받아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② 일반인 참여자 질문

해녀 수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면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정희준 일반인 참가자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 사회자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희준 일반인 참가자 네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정희준입니다.

이정민 사회자 예예 어떤 궁금증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정희준 일반인 참가자

예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제주 해녀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네 현재 제주 해녀 수는 고령화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정민 사회자 예예

정희준 일반인 참가자

그래서 제주해녀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까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녀 수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면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사회자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함한희 교수님께서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 예 저게 제외될 수도 있나요. 잘못하면요.

함한희 발표자 그렇죠.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의 정신에 위배돼서 제외를 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 감소 현상으로 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외를 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이게 하루 1~2년 사이 혹은 3~4년 사이,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그 중요한 거는 제외의 원칙은 이제 이렇게 딱 이게 강제적인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어떤 정말로 윤리라든가 어떤 규범에 어긋나는 종목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규정 같은 것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거에는 그렇지만 해녀를 우리가 등재했던 어떤 배경들 그러니까 이거 훌륭하니까 우리가 해녀문화유산을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고 결정한 공지문에 나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R1, R2에서 R5까지 있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제주도 도민 전체가 그다음에 해녀 공동체가 같이 노력한다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것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유네스코에서도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네.

③ 토론자 마무리 발언

이정민 사회자

저희가 등재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요 이걸 이렇게 또 지속시키기 위해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된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네 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좌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좌혜경 토론자

네 제주의 어머니, 제주 해녀분들은 어떻든 제주의 아이덴티티이고 제주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 보전이 가능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우리 김수희 부장님께서는 네

김수희 토론자

네 그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 해녀 정책이 아주 선두에 서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호와 지속적인 정책을 해왔지만은 유네스코 등재 5주년을 맞이해서 해녀어업 정책이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이제 해녀어업에 국한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업문화 안에 포함된 제주도 해녀, 제주도 해녀문화를 상징화 시킴으로써 이게 하나의 제주도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관광화 사업에도 도움이되고 산업화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아마 전환의 시기가 돼서 좀 더 다양한 해녀어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 사회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강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정찬 토론자

저는 개인적으로 해녀 작업, 해녀에 대한 어떤 해양 생태계의 그 생태학적 역할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해녀는 해조류를 뜯어 먹는 초식 동물임과 동시에 성게라든가 다른 그 동물들을 포식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할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부류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집단으로서 그 환경의 파괴자가 될 수도 있고 조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례로 옐로스톤의 회색 늑대를 풀어놨더니 그 옐로스톤의 종 다양성과 생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녀분들을 생태계의 조절자임과 동시에 어떤 바당 지킴이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더 주목을 했으면 이제 새로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민 사회자

네 생태계 조절자 바당 지킴이 훨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상필 토론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도정이 이제 해녀문화 정책을 되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패널분들과 그리고 도민들이 주신 의견은 저희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제3차 제주 해녀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울러 제주해녀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해녀 양성과 그리고 수산자원 회복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행정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정민 사회자

앞으로도 좋은 정책 또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단순히 채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동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왔던 우리 제주의 해녀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그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해녀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제주해녀문화가 우리 후손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특집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 록

주제 발표 1.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_ 함한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발표 2.

제주의 해녀(잠수)와 일본의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과제와 가능성

_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 시립대학 교수)

제주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함 한 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린 유네스코 제11차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이하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5년이 흘러서 어느새 유네스코 등재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리고 있다.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하게 된 것은 제주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 해녀의 고령화 및 사회문화적 변화 등으로 해녀문화의 보호활동의 필요성, 인류문화의 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제주도민의 성원은 물론이고 지자체, 관련 기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녀들 스스로의 노력이 커다란 뜻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녀문화의 이러한 가시성 제고는 해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도민적인 염원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문화가 명실 공히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남으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 해녀공동체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의 협치가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제주도의 전면적인 생태, 사회, 문화의 변화 속에서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을 것이다.

2. 협약체제의 이해

협약 체제가 가동되면서 일각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공동체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론의 입장은 유산화의 정치적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면도 없지 않으나, 제주해녀의 경우는 이러한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 해녀문화는 유네스코의 등재나 국가나 도 무형문화재 지정과는 상관없이 생업의 유형으로 오랫동안 전승성을 가진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현상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해녀문화를 포함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보호정책에 대한 원칙과 실천 사이에 일어나는 간극의 문제를 먼저 검토해 본다. 즉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집단, 그리고 공동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 체제 아래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부터 시작해 보려는 것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공표된 것을 이르러서 유산체제의 탄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이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위기를 맞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이나 규범을 정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다. 즉 국제 체제(international regime)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원래 ‘레짐’이라는 뜻은 국가차원에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규율과 규범을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도 협상을 통한 레

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주로 무역, 노동, 정보기술, 공중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convention)이나 조약(treaty)을 체결해 왔다. 이같은 국제적인 규약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호 혜택을 나누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와 비정부기구의 관계자들은 협상 테이블로 모이게 된다. 최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많아지자 국제 레짐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2003년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무형문화유산 협약 또는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체결되면서 유산체제에도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 행정가,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범주, 보호 활동 등에 관한 범국제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특히 비서 구권의 전통문화, 토착문화, 민속을 포괄하는 문화담론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인간문화재,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등의 사업을 해오던 터여서 선행 프로그램을 범지구적인 협약체제로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2003년도 협약은 총 47개국의 비준을 얻어서 2006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2003년 협약이 내세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나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정체성과 연속성의 감각을 부여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창조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널리 알릴 수 있다” (Tex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2–Definition). 이 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필두로 범주의 설정 및 보호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2003년도 무형문화유산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이하 유산 공동체)-개인과 집단이 포함된-의 위상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 공동체들은 누대에 걸쳐 전승된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과 이를 살아있는 문화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전승성, 정체성 그리고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가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압축한 것이 바로 유산공동체가 된다. 이러한 유산 공동체의 개념이 협약의 중심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산 공동체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유산 공동체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정책을 준비하였다. “문화유산 공동체는 그들이 원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특정한 측면의 가치를 인정해서 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유산을 유지시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렸다(Council of Europe 2005; Adell, et al. 2015: 8). 이 정의가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가 유산을 보유한 사람들 자체라기보다는 유산의 전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유산 공동체의 개념에서 유산 만들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실천성이 매우 중요해 진다. 협약에서도 정체성의 본질은 구성되는 것이며, 정체성 확인의 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기 보다는 주관성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스스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유산 공동체는 스스로 유산으로서의 전통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Barth 1969; Honko 2013, recited by

Adell). 그러나, 이같은 유산 공동체를 발굴하여 보호방법을 세우고자 할 때는 여전히 공동체의 구성, 인식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미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동체는 유산의 전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기에 그들의 실천성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다: ‘누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인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와 공동체 구성원은 같은 사람들인가’, ‘공동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등의 물음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이나 소수의 목소리는 무시된 채 동질성을 강조하는 유산 공동체가 되며, 나아가서 이를 이상적인 문화공동체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된다. 유네스코는 협약을 통해서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앞세우면서도, 동질성이 강조된 낭만적인 공동체성에 주목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¹⁾

3. 등재 이후의 변화 양상 – 유산공동체의 가시화

정부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에 돌입한다. 해녀문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화재청 내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2013년 제주도 해녀를 등재후보 종목으로 결정했다. 제주도의 자체적인 노력도 큰 몫을 하였다.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에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국가목록을 작성하는 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갔다. 이듬 해 유네스코 등재신청 대상 종목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2014년 3월). 유네스코에서는 제출된 등재신청서를 심의평가한 후, 해마다 열리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해녀문화는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에서는 대표목록 선정을 할 때 모든 종목에 대해서 5가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종목의 명확한 성격과 정의, 가시성과 인식의 제고, 보호방책,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목록화 여부 등이다. 해녀문화의 경우는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서 무난히 등재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적 상징이며, 해녀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오래도록 전승하면서도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온 점 등을 높이 샀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방법의 해산물 채취가 해양생태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 등에도 주목했다. 해녀공동체의 운영이 독특해서 이 점을 높이 사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공동채취, 잠수기술의 전수, 상군의 리더십을 통한 상호부조의 문화 등이 결정문에 적시되었다. 국제체제 아래서의 이러한 노력은 다시 국내의 무형문화재 정책의 보완으로 이어졌다.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후 제주도 해녀는 국내의 무형문화재 법에 의거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전의 문화재법 아래서는 해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녀문화와 관련이 있는 노래, 의례, 도구 등을 중심으로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해녀 노래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15점은 2008년도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유자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

1) 아델과 공동저자들은 책 서문에서 국가의 역할과 공동체의 유산만들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공동체 문화에 대한 동질화의 문제를 지적한다(“Introduction,” Adell, Nicolas, et al. 2015, Between Imagined Communitie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Participation, Territory and the Making of Heritage, Gottingen Studies in Cultural Property, vol. 8, Universitätsverlag Gottingen); 함한희 2017에서 재인용.

고 신법의 시행 이후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제 132호, 2017년 5월)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문화재청에서도 새로운 유산정책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또한 기존의 예능과 기능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전통지식, 생업 지식과 기술 등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크다. 무형문화재를 담당하는 정책담당관, 전문가 그리고 관계 집단에서도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승과 활성화 방안을 더 고심하기 시작했다.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인정되지 않고, 공동체나 국내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 방안 마련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녀와 해녀문화의 보전에 대한 최근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해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녀문화유산과가 발족할 만큼 보전 정책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이 부서의 담당 업무는 전반적인 해녀정책지원 업무이다. 해녀 어업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및 소득보장 강화, 해녀문화 홍보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확대,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사업, 해녀조사자료집 발간 등과 같은 해녀문화 및 해녀공동체 전승·보전, 제주해녀 축제 육성 및 해녀박물관 운영 강화 등 다채롭다.²⁾

이러한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감소와 전승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제주 현직 해녀 인구는 3,613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활동 중인 해녀들의 나이가 고령이다.³⁾ 고령의 해녀들이 아직도 물질을 하고 있어서 바다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모두가 걱정이다. 그래서 마을 해녀회와 지자체에서도 고령자들이 물질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보존 정책도 마련되어서 고령의 해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다.

해녀문화는 등재 이후, 신법과 조례에 따른 해녀와 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 정책이 활발해졌지만, 해녀들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보호정책이라기 보다는 개별 해녀의 지원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등재 이후 해녀문화의 ‘유산화’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내유산 체제에서는 아직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공동체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대한 고려나 의도가 약해 보인다. 2003년도 무형문화유산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개인과 집단을 포함한다-의 위상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 유산 공동체가 세대를 걸쳐서 전승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가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협약의 이행국으로 등재신청서에서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도와 가치 기준이 드러나 있다. 유네스코 협약체제의 영향이 국가의 해제모니를 강화시킨 것은 명백하지만, 공동체 중심의 보호에는 힘을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세 번째로는 등재 이후 해녀와 공동체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유산 만들기’에 많은 시간과 힘을 기우려야 해서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경험하게 된다. 해녀의 경우, 과거에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중심이었으나, 유산체제 아래서는 제주도 권역을 다 둘는 해녀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효율성을 따지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로 꼽히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을단위 해녀공동체의 실제 운용력, 상군의 지도력 등이 정부의 상명하달식 정책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운용의 힘 대신 정책적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해녀문화가 제주도 전체의 문화적 상징과 정체성으로 부상하면서 해녀공동체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 홍보, 관광, 교육, 공연 등 생업 이외의 대외 활동에 나서야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2)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3) 2020년 현재, 50세 이상이 97.8%이다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4. 글을 마치며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한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실천과 전승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이란 용어가 주는 위로부터의 관리라는 뜻 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는 점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해녀문화의 다양한 전승 양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산화 이전의 상태였던 각 마을과 지역에서 발달해 온 해녀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 셋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해녀문화를 가시화 시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유산공동체는 해녀 및 해녀문화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 행정공무원, 도민 그리고 타 지역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유산 체제 아래서 물질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할 해녀들이 있다면, 유산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협조와 분업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분야를 염두에 두고, 유네스코가 최근에 개발한 종합성과틀(Overall Results Framework, ORF)을 참고해 본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ORF는 개별종목을 평가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쓸 때 사용해야하고 보호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표이다.⁴⁾

- 제도 개선
- 전승과 교육
- 인벤토링과 연구
- 정책, 법, 행정수간
- 인식제고
- 공동체의 참여
- 국제적 협력

이상으로 해녀문화의 지속적 전승에 필요한 몇 가지 사안을 생각해 보았다. 본 발표에서는 유네스코의 협약에 비추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해녀문화의 가치와 전승성에 관한 시로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향후 해녀문화 관련한 여러 현장의 조사가 좀 더 보완되었을 때 논의를 완성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4) 종합성과 프레임워크(또는 종합성과틀)는 2003년 협약의 산출물, 결과 및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성과틀은 장기, 중기 및 단기 성과와 여덟 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성된다. 주제영역은 또 26개의 핵심 지표 및 86개의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 각 국가는 자국 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의 존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또 보고해야 한다(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ww.unesco.org/culture/ich).

참고문헌

- 오세미나 외, 2015,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들,”
무형유산포럼 편, 『무형유산연구』 제1권: 249–270.
- 유철인, 201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제주잠녀의 지속가능성”,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함한희, 2013, “제주해녀와 해녀문화에 대한 일고찰”,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 _____, 2017,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 해녀공동체의 도전과 과제:
‘유산화 (heritization)’과정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2:2, 무형유산학회.

Adell, Nicolas, Regina F. Bendix, Chiara Bortototto & Markus Tauschek, 2015,
Between Imagined Communitie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Participation,
Territory and the Making of Heritage, Gottingen Studies in Cultural Property,
vol. 8. Universitätsverlag Gottingen.

Bendix, Regina F., Aditya Eggart and Arnika Peselmann, eds. 2012.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 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De Cesari,
Chiara, Thinking Through Heritage Regimes. 2012

인터넷 사이트

- 문화재청, www.cha.go.kr
- 법제처,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Promotion,” www.law.go.kr
-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 해녀박물관, www.jeju.go.kr/haenyeo/haenyeo/statistics.htm
-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ww.unesco.org/culture/ich

20210930:14~

유네스코 등재 5주년 기념 제주해녀문화 대담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의 해녀(잠수)와 일본의 해녀 문화계승을 위한 과제와 가능성

이지치 노리코伊地知紀子 (오사카시립대학)

1. 해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 토바시鳥羽市와 시마시志摩市 의 해녀인구

해녀의 수

	토바시+ 시마시	토바시	시마시
2010년	973명	565명	408명
2014년	761명	505명	256명
감소	-212명 (21.8%감소)	-60명 (10.7%감소)	-152명 (37.3%감소)

※ 토바시에 비해 시마시의 감소가 더 크다

해녀의 연령

	토바시+ 시마시	토바시	시마시
평균연령	65.2세	65.0세	65.9세
20대 해녀	5명	3명	2명
30대 해녀	17명	7명	10명
최고령	-	86세	85세
80대 해녀	51명	32명	19명

※ 가장 많은 연령대를 보면 토바시가 60대 166명,
70대 164명이며, 시마시는 70대로 96명

Cf. 미에현(三重県)의 현역 해녀

2010년 978명

2018년 660명 (바다박물관)

출처 : 해녀진흥협의회, 2014

▷ 제주도의 해녀인구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2월 현재 통계자료

(단위: 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교 (증감)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계	8,992	9,023	4,583	4,588	4,420	4,435	△0.34
현직 해녀	3,613	3,820	2,141	2,241	1,472	1,579	△5.4
전적 해녀	5,379	5,203	2,422	2,347	2,957	2,856	3.4

※ 현직해녀 : 소리, 전복 등 물질작업 (햇무레)을 현재 하고 있는 해녀 (해녀)

※ 전적해녀 : 물질작업을 해었던 자

현직 해녀 현황

시별·연령별

(단위: 명)

구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80세	80세이상
계	3,613	4	23	54	309	1,091	1,602	530
제주시	2,141	0	10	32	228	690	848	333
서귀포시	1,472	4	13	22	81	401	754	197
비율	100%	0.1	0.6	1.5	8.6	30.2	44.3	14.7

출처 : 해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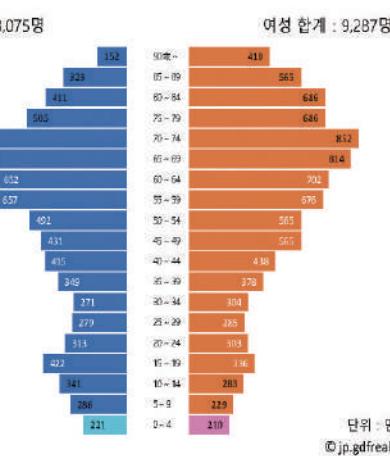
※ ※ 60세 이상 : 89.2%, 70세이상 59%

▷ 고령화되어가는 지역사회

④ 2020년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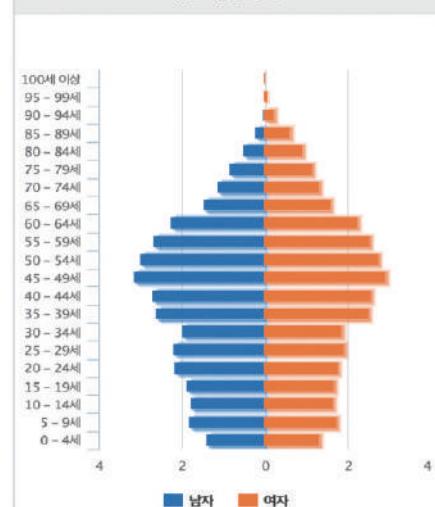
2020년 토바시(鳥羽市)의 인구 구성 (예측)

남성 합계 : 8,075명



여성 합계 : 9,287명

제주특별자치도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2.jsp>

2. 후계자 문제

▷ 일본 : 지역활성화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 지역부흥협력대 : 2009년 총무성이 제도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며 지역부흥이나 지역 살기 등에 관심이 있는 도시부의 주민들을 받아들여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위촉한다.
- 단원에게는 지역브랜드화나 지역특산품 개발 및 판매, 프로모션, 도시주민의 이주 및 교류 지원, 농림수산업의 종사,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의 지역협력 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대원의 정주와 정착을 도모한다.
-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력地域力を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총무성의 발표를 보면 5,556명 대원 중 40%가 여성이고, 연령대는 70%가 20대와 30대이다.
- 또한 이곳 조사에 따르면 임기종료 후 50%가 임지의 지자체에, 나머지는 임지 근린 지자체에 정주하고 있다. (2020년 3월)
- 대원 1명 당 보상비 등으로 연간 270만엔, 활동비로 220만엔을 각각의 상한액으로 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급함

▷ 토바시 이지카초石鏡町의 사례

2019년도 이지카초 마을 활성화 ~ 해녀 마을 살기 ~ 담당 : 모집 1명

<업무개요>

■ 1년째 (준대원準隊員기간)

- ① 이지카초를 알고 지역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본다.
- ② 협력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실현 가능한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지역에 활용할지 계획을 세운다.
- ③ 문화와 생활 등 이지카초 마을 살기의 매력을 자신의 시점으로 널리 알린다.
- ④ 이지카초 이주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그 매력을 전한다.

■ 2년째 이후

- 1년째에 시행했던 활동과 대원의 스킬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확장해 나간다.
- 준대원 기간 종료 후(2년째 이후), 지역부흥협력대로서의 활동을 지속해가면서 지역주민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생활의 일부로 해녀업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모집대상>

다음 항목을 대체로 충족시키는 분

- 나이 : 20~30대
- 현재 3대 도시권 등(과소, 산촌, 낙도, 반도 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주민표(주민등록)가 있는 분으로 위촉 후에 토바시에 주민표를 옮겨 토바시내에 거주 가능한 분
-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
- 지역활성화에 의욕이 있고 행정이나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
- 지역축제와 행사 등,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분
- 자동차 운전면허(보통)를 소지한 분
- Word, Excel, 인터넷 등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분
-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토바시에 정주할 의욕이 있는 분

<근무기간>

- 활동일수 : 원칙적으로 월 20일 (주 5일 이내, 토 · 일 · 경축일이 활동일이 되는 경우도 있음)
- 활동기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

<급여 · 임금 등>

월액 166,000엔

- 1개월간의 활동실적에 맞춰 익월에 지급한다.
 - 1개월간의 활동일수 20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당 8,300엔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 ※ 그 외 상여금, 시간 외 수당, 퇴직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특별우대 · 복리후생>

-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활동 중 거주지는 시가 마련한 곳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단 이사비용 및 광열, 수도요금은 개인이 부담한다.
-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사무기기는 시가 마련하여 무상으로 대여한다.
- 실무에 필요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시에 의한 사용물의 대여로 처리된다.
- 그 외에 활동에 필요한 것(출장비용, 소모품, 그 외 활동에 드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시가 지출한다.

▷이자카초에 정주한 「지역부흥협력대원」 :

- > 개시 : 이자카초가 이 사업에 참가한 것은 2015년부터
- > 개시전의 과제 : 어협조합원 자격취득 = 주민표가 해당지구일 것, 출자금, 수년 거주, 지역주민의 신뢰, 「카마도」(해녀들이 운영하는 작은 오두막 海女小屋) 소속
- > 과제에 대한 대응 : 어협조합원 자격특례 = 사전 정주 불필요, 출자금 분납
「카마도」(70~80대의 최고령 카마도) 소속
- > 현재 : 1명이 해녀와 다른 일을 겸업하며 정주, 또 1명은 해녀업 개시

cf. 결혼을 계기로 이자카초에 정주한 여성 :

- > 어협조합원 자격 취득 = 2년 거주 후
- > 수입 = 1년에 100일 정도 바다로 나갈 수 있음

연수입	1년째	30만엔
	2년째	50만엔
	3 · 4년째	100만엔
	5년째	150만엔

농업이 불가능한 지역—겸업 (료칸, 호텔, 요식업, 물품판매, 아마고야 海女小屋 체험)

시마시志摩市 다이오초大王町 마을 해녀(1928년생)의 생애 수입 :

- > 채집대상 = 전복, 소라, 성게, 오분자기, 소라고등, 해조류
- > 연령별 평균수입 = 초기 (1960년, 32세) 5,479엔
절정기 (1992년, 64세) 66,414엔
은퇴시기 (1998년, 70세) 24,997엔

▷ 제주 : 해녀에 특화한 지원

- 신규해녀에 대한 경제지원 : 만 40세 미만 월 30만원 (3년간)
어촌계 가입비 지원

Cf. 일본과의 차이

- 소라 가격 보상
- 고령 해녀, 은퇴 해녀에 대한 경제지원
- 해녀 치료비 지원



공통 과제 : 자원의 고갈
해양 오염
온난화 등

3. 바당밭의 육성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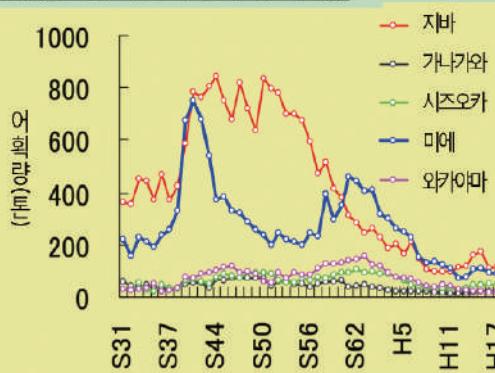
- 전복 가격 : 1995년 7,975엔 / kg
2010년 4,743 엔 / kg

- 해조밭(해조총)의 재생

▷ 제주

같은 과제

● 태평양연안 각 현의 전복류 어획량



출처 : 松田浩一・阿部文彦 2008

콘크리트판을 활용한 전복 방류어장 만들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복 방류어장 조성 매뉴얼



전복 종묘는 방류 후 깊이가 크고 또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는 낮게자 것이다. 깊기 때문에 생존이 흔들리고 어획하기 수준 어려워 방류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해녀가 잡기 쉽고 전복 종묘의 생존이 좋은 콘크리트판을 이용한 새로운 전복 방류 어장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원당기능단 갈집마을 <전복 방류 어장 조성 대뉴얼>을 만들었다.
이 대뉴얼에는 콘크리트판의 소개, 어장조성의 적지, 방류 방법, 또한 전복과 어획에서의 주의점 등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기재했다.
2017년도 조업시범에서는 회수율 10% 이상의 사례도 있어 콘크리트판 어장 조성이 따른 효과가 실증되고 있다.

내용 소개(일부)

● 사용하는 콘크리트판



전복 종묘가 서식하기 위한 <틈>이 설계됨

콘크리트판은 전복류의 서식에 적합하며 판 위에 멎이인 해조가 번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어획시에는 판을 뒤집기 용이한 크기이다.
조성하는 어장 주변에 해조가 번성하고 판이 모래 등에 매몰되지 않는 안정된 해저에 판을 설치함으로써 전복류가 방류에서 어획까지 서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이상 조성 기술을 전복류의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마찰 만들기에 활용 바란다.



콘크리트판(상)과 해저의 벌집으로 들어가는 전복 종묘(하)



三重県水産研究所 沿岸資源増殖研究課

Mie Prefecture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Tel. 0599-53-0018 Fax. 0599-53-2222

4. 생활자生活者라는 시점 : 문화계승을 위한 과제와 가능성

▷생활자生活者라는 시점

지역공동체의 계속성 : 해촌이라는 공동성

경험지經驗知의 계승

숙련으로의 과정 : 오랜 세월을 이어온 조업 감각의 형성과 기술의 습득

바당밭의 변형 : 자원증산과 지역개발의 영향

▷육지밭의 존재 : 생활의 계속성과 겸업 가능성

▷변화하는 해역 생활자 : 다양화하는 해녀, 해사海土의 존재

▷조업현황에 대한 조사비교와 공유 : 잠수업의 현황, 잠수의 깊이, 채집장소,
채집량(변수 : 경험 년수, 조업일수, 채집 대상 등)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의 다양성 발신 : 시장동향(전복, 소라)에 의존하지 않는 해양문화의 창조, 환경보전



▷잠수어업 종사자의 증가 —생활 안정—문화의 전승과 계승 —지역공동체의 존속

< 참고문헌 >

해녀진흥협의회 「제5회 해녀 summit 2014 in 시마志摩 심포지엄『해녀의 후계자』」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9일)
<https://www.mie-u.ac.jp/hakugaku/amaken/document/amashinpo141025.pdf>

松田浩一、2014 「미에현 해녀들의 조업실태와 전복 증식을 위한 노력」 『일본수산학회지』 Vol.80, pp.262.

松田浩一・阿部文彦 「미에현의 해녀어업 현황과 전복류의 어획 상황에 대해」 미에현박물관, 2008년

12월 15일(최종검색일: 2021년 9월 9일)

<http://www.mie-u.ac.jp/hakugaku/amaken/document/matsuda.pdf>

미에현 교육위원회, 2014 『해녀 습속습습기초조사보고서』

< 참고 URL >

SGIS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2.jsp>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9일)

해녀 박물관 <http://www.haenyeo.go.kr> (최종검색일: 2021년 9월 9일)

< 자료 >

미에현 수산연구소 연안자원 증식연구과, 2019 『콘크리트판을 이용한 전복 방류 어장 만들기』

20210930:14~

유네스코 등재 5주년 기념 제주해녀문화 대담
제주학연구센터

済州の海女(チャムス)と日本の海女 文化継承への課題と可能性

伊地知紀子 (大阪市立大学)

1. 海女漁に従事する人びと

▷鳥羽市・志摩市の海女人口

海女の数

	鳥羽・志摩全体	鳥羽市	志摩市
2010年	973人	565人	408人
2014年	761人	505人	256人
減少	-212人 (21.8%減)	-60人 (10.7%減)	-152人 (37.3%減)

※志摩市の減少は鳥羽市と比べて大きい

海女の年齢

	鳥羽・志摩全体	鳥羽市	志摩市
平均年齢	65.2歳	65.0歳	65.9歳
20代の海女	5人	3人	2人
30代の海女	17人	7人	10人
最高年齢	—	86歳	85歳
80代の人数	51人	32人	19人

※一番多い年代は、鳥羽市60歳代166人・70歳代164人である。
志摩市は70歳代96人。

Cf. 三重県内の現役海女

2010年 978人
2018年 660人 (海の博物館)

出典:海女振興協議会 2014

▷ 济州道の海女人口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2월 현재 통계자료

(단위: 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교 (증감)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계	8,902	9,023	4,563	4,588	4,429	4,435	△0.34
현직해녀	3,613	3,820	2,141	2,241	1,472	1,579	△5.4%
전직해녀	5,379	5,203	2,422	2,347	2,957	2,856	3.4

* 현직해녀 : 소라, 전복 등 물질작업 (햇무리)을 현재 하고 있는 해녀 (해남)

* 전직해녀 : 물질작업을 하였던 자

현직해녀 현황

시별·연령별

(단위: 명)

구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80세	80세이상
계	3,613	4	23	54	309	1,091	1,602	530
제주시	2,141	0	10	32	228	690	848	333
서귀포시	1,472	4	13	22	81	401	754	197
비율	100%	0.1%	0.6	1.5	8.6	30.2	44.3	14.7

出典 : 海女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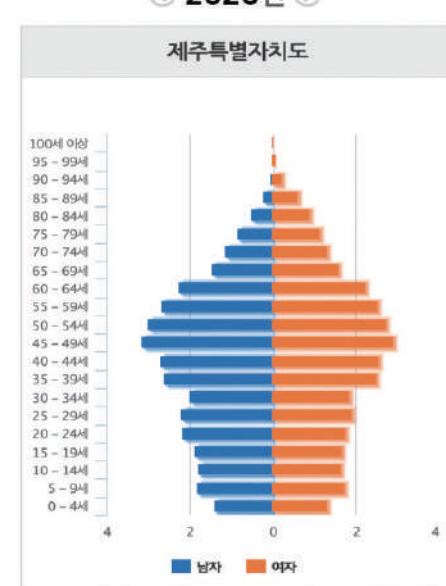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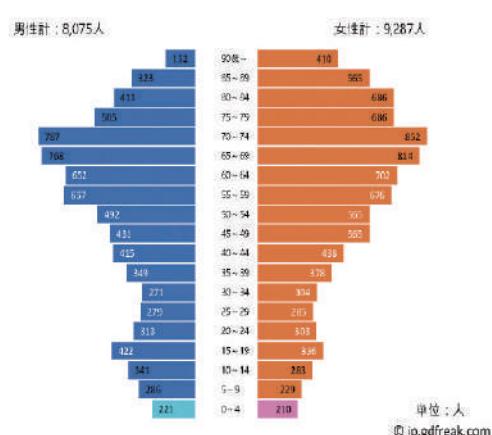
* * 60세 이상: 89.2%, 70세이상 59%

▷ 高齢化する地域社会

◎ 2020년 ◎

제주특별자치도

2020年 鳥羽市の人口構成(予測)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2.jsp>

2. 後継者問題

▷日本：地域活性化の一環としての位置づけ

- ・地域おこし協力隊：2009年 総務省が制度化。
- ・**地方自治体**が募集を行い、地域おこしや地域の暮らしなどに興味のある都市部の住民を受け入れて地域おこし協力隊員として委嘱する。
- ・隊員には地域ブランド化や地場産品の開発・販売・プロモーション、都市住民の移住・交流の支援、農林水産業への従事、住民生活の維持のための支援などの「地域協力活動」に従事してもらい、あわせて隊員の定住・定着を図る。
- ・一連の活動を通じて、地域力の維持・強化を図っていく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 ・総務省によれば、5,556人の隊員の4割が女性、7割が20・30代となっている。
- ・また任期終了後については、同省調査によると、5割が任地の自治体に、6割が任地の近隣自治体に定住（2020年3月）。
- ・隊員1人につき報償費等として年間270万円、活動費として年間200万円をそれぞれ上限に地方自治体に対して地特別交付税措置。

▷鳥羽市石鏡町の事例：

2019年度 石鏡町（いじかちょう）活性化～海女のまち暮らし～担当：募集1名

<業務概要>

■ 1年目(準隊員期間)

- ①石鏡町を知り、地域の魅力を肌で感じる
- ②協力隊としての関わり方を考え、できること得意なことを地域に活かす計画を立てる
- ③文化や生活など石鏡町暮らしの魅力を自分の視点で発信する
- ④石鏡町移住体験プログラムを企画・実行し、魅力を伝える

■ 2年目以降

- ・1年目の取組や隊員のスキルを活かし、地域活性化を広げていく
- ・準隊員期間終了後（2年目以降）、地域おこし協力隊としての活動を続けながら、地域住民として認められることが、生活の一部として“海女漁”も可能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募集対象>

次の項目をおおむね満たす方

- ・年齢：おおむね20～30歳代
- ・現在3大都市圏等（過疎・山村・離島・半島地域以外の都市地域）に住民票がある方で、委嘱後に鳥羽市へ住民票を移動させて鳥羽市内に居住できる方
- ・心身ともに健康で誠実に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方
- ・地域活性化に意欲があり、行政や地域住民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る方
- ・地域の祭りや行事など地域活動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方
- ・普通自動車運転免許を取得している方
- ・Word、Excel、インターネットなど基本的なパソコン操作ができる方
- ・活動期間終了後も鳥羽市に定住する意欲のある方

<勤務時間>

- ・活動日数：原則月20日（週5日以内、土日祝日が活動日となる場合あり）
- ・活動時間：1日8時間、週40時間程度を基本とします。

<給与・賃金等>

月額166,000円

- ・1ヶ月間の活動実績に応じて翌月に支給します。
 - ・1ヶ月間の活動日数が20日に満たない場合は、1日当たり8,300円の日割り計算により支給します。
- ※その他、賞与、時間外手当、退職手当等は支給しません。

<待遇・福利厚生>

- ・雇用保険には加入しません。健康保険料及び年金保険料は自己負担とします。
- ・活動中の住居は市が用意したものを無償貸与します。ただし、引っ越し費用及び光熱水費は個人負担になります。
- ・業務に必要なパソコンや事務機器については、市が用意したものを無償貸与します。
- ・業務に必要な車両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市による私用物の借り上げとなります。
- ・その他、活動に必要なもの（出張に係る旅費、消耗品、その他活動にかかる経費等）については、予算の範囲内で市が支出します。

▷石鏡町に定住した「地域おこし協力隊員」：

- >開始：石鏡町の受け入れは2015年から
- >開始前の課題：漁協組合員資格取得 = 住民票が当該地区、出資金、数年居住、地域住民の信頼
「かまど」（海女小屋）への所属
- >課題への対応：漁協組合員資格特例 = 事前定住不要、出資金分納
「かまど」（70代～80代の最高齢かまど）所属
- >現在：1名海女および他の仕事で定住、1名海女漁開始

cf. 石鏡町に婚姻を契機に定住した女性：

>漁協組合員資格取得 = 2年居住後

>収入 = 1年で100日稼働できる程度

年収	1年目	30万円
	2年目	50万円
	3・4年目	100万円
	5年目	150万円

農業ができる地域ではない一兼業（旅館、ホテル、飲食業、物品販売、海女小屋体験）

志摩市大王町の海女（1928年生）の生涯収入：

>採集対象 = アワビ、ザザエ、ウニ、トコブシ、ホラガイ、海藻類

>年齢別平均収入 = 開始時（1960年 32歳）5,479円

ピーク時（1992年 64歳）66,414円

引退時（1998年 70歳）24,997円

▷ 濟州：海女に特化した支援

- ・新規海女への経済支援：満40歳未満 月30万ウォン（3年間）
漁村契加入費支援

Cf. 日本との違い

- ・サザエ価格補償
- ・高齢海女、引退海女への経済支援
- ・海女治療費支援



共通の課題：資源の枯渇
海洋汚染
温暖化 etc

3. 海の畑を育てる

▷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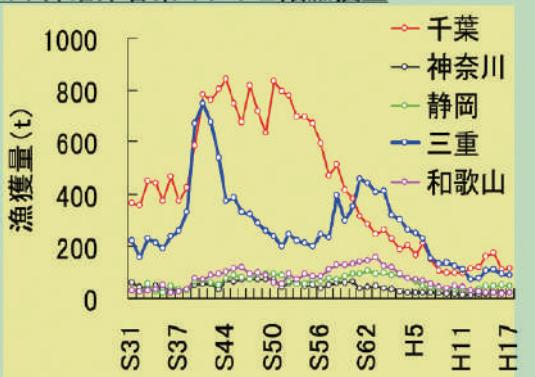
- ・アワビ単価：1995年 7,975円 / kg
2010年 4,743円 / kg

▷ 濟州

同様の課題

・藻場の再生

● 太平洋沿岸各県のアワビ類漁獲量



出典：松田浩一・阿部文彦 2008

コンクリート板を用いたアワビ放流漁場づくり

回収率を高めるためのアワビ放流漁場造成マニュアル



- アワビ稚苗は放流後の減耗が大きく、また、成長した後も漁場では取り残しがあるので、生き割りが良く、誰でもやすい漁場へ放流することで、回収率を高めることができます。
- このため、海女さんが漁獲しやすく、アワビ稚苗の生き残りが良いコンクリート板を用いた、新しいアワビ放流漁場づくりを実践するために添付いたぐ手引きとして、『アワビ放流漁場造成マニュアル』を作成しました。
- このマニュアルには、コンクリート板の紹介、漁場造成の適地、放流の方法、また、アワビ稚苗の漁獲に関する注意点など放流効果を高めるための方法を記載しました。
- H29年度の操業試験では回収率が10%以上の事例もあり、コンクリート板漁場造成による効果が実証されています。



・アワビ稚苗が生息するための「篠巣」が付けてあります。

コンクリート板は、アワビ類の生息に適し、板上に根となる海藻が繁茂することができる形状で、漁獲時には板の反転が容易な大きさです。造成する漁場の周辺に海藻が繁茂し、板が砂などに埋没しないよう定めた海船に板を設置することで、アワビ類が放流から漁獲まで生息できる基質となります。

当漁場造成功術を、アワビ類の放流効果を高めるための新たな漁場づくりに活用してください。



コンクリート板（上）と板と海底の隙間に潜り込むアワビ稚苗（下）

三重県水産研究所 沿岸資源増殖研究課

Mie Prefecture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517-0404 志摩市浜島町浜島5584-3 TEL 0599/53-0016 FAX 0599/53-2225

4. 生活者という視点：文化継承への課題と可能性

▷生活者という視点

地域共同体の継続性：海村という共同性

経験知の継承

熟練への過程：長年の操業による感覚の形成と技術の習得

海の畠の変形：資源増産や地域開発の影響

▷陸の畠の存在：生活の継続性と兼業可能性

▷変化する海域生活者：多様化する海女、海士の存在

▷操業現況についての調査比較と共有：潜水漁の現状、潜水の深さ、採集場所、

採集量（変数：経験年数、稼働日数、採集対象など）

▷海からの食材の多様性を発信：市場動向（アワビ・サザエ）に依存しない海域文化の創造、環境保全



▷潜水漁従事者の増加—生活の安定—文化の伝授と継承—地域共同体の存続

<参考文献>

海女振興協議会「第5回海女サミット2014 in 志摩シンポジウム『海女の後継者』」(最終検索日:2021年9月9日)。

<https://www.mie-u.ac.jp/hakugaku/amaken/document/amashinpo141025.pdf>

松田浩一、2014「三重県における海女の操業実態とアワビ増殖のための取組」『日本水産学会誌』Vol.80, pp.262.

松田浩一・阿部文彦「三重県における海女漁業の現状とアワビ類の漁獲状況について」三重県博物館、2008年12月15日(最終検索日:2021年9月9日)。

<http://www.mie-u.ac.jp/hakugaku/amaken/document/matsuda.pdf>

三重県教育委員会、2014『海女習俗基礎調査報告書』

<参考URL>

SGIS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2.jsp> (最終検索日:2021年9月9日)

해녀 박물관 <http://www.haenyeo.go.kr> (最終検索日:2021年9月9日)

<資料>

三重県水産研究所沿岸資源増殖研究課、2019『コンクリート板を用いたアワビ放流漁場づくり』



대담 현장 사진

**제주해녀문화.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1. 들어가며

- 유네스코 제11차 정부간위원회 회의(2016년 11월 28일 ~ 12월 2일)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림
- 대한민국의 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으로 등재됨
- 2014년 농악에 이어서 19번째로 등재됨.



해녀의 고령화, 사회문화적 변화로 해녀문화의 보호 필요



